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그림책 독서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최정애

2015년 6월

그림책 독서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 아존중감과 교유관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민 호

최 정 애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최정애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5년 6월

The effect that picture books have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development in
Children's Community Center.

Choi, Jung Ae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2015. 06.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차 례

국문초록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그림책을 이용한 독서치료	6
2.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11
3. 독서치료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5
III. 가설	17
IV. 연구 방법	18
1. 연구 설계 및 절차	18
2. 연구 대상	18
3. 측정 도구	19
4. 처치도구	21
V. 연구 결과	25
1.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5
2.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29
VI. 결론 및 논의	36

1. 결론	36
2. 논의	38
참고문헌	39
ABSTRACT	43
부록	45

표 목 차

[표 IV-1] 연구 절차	18
[표 IV-2] 실험·통제 집단 구성	19
[표 IV-3] 자아존중감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0
[표 IV-4] 교우관계 검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0
[표 IV-5] 회기별 독서치료 프로그램 활동 내용	21
[표 V-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제	25
[표 V-2] 자아존중감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26
[표 V-3]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교우관계에 대한 기제	29
[표 V-4] 교우관계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30
[표 V-5] 아동의 교우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기제	31
[표 V-6] 교우관계의 하위요인별 공변량 분석 결과	32

그 림 목 차

[그림 V-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 변화	26
[그림 V-2]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교우관계 사전, 사후 변화	29
[그림 V-3]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교우관계 하위요인의 사전, 사후 변화	30

국 문 초 록

그림책 독서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최 정 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내의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첫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교우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내의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아동 8명(남 3명, 여 5명)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또 다른 8명(남 3명, 여 5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는 16회에 걸쳐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지를 가하지 않았으며, 실험이 끝난 후 두 집단의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도구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1974)가 변안한 자아존중감 검사지를 사용하였고 교우관계 검사는 김형태(1989)가 제작하여 문항분석을 마친 교우관계 척도로 문소영(2007)이 초등학생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자아존중감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둘째,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에서 친구의 유무와 신의는 변함이 없었고, 교제의 지속성, 친구 간의 적응, 친구와의 공동생활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적용하여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감을 쌓으며 상호작용 기술을 익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학생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다양한 지역, 시간,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가 다양한 전자도서나 영상 자료 등을 함께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다양한 생활 지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훈계나 설득보다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새로운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시기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인의 성격이 형성되고, 자아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때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중심에서 또래집단으로 생활의 중심이 이동하여 자아존중감을 키우고 교우관계를 습득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민희, 2009). 이 시기에 아동은 자신의 여러 장점들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고, 학교와 그 외 또래집단에 참여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기본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같은 시기의 또래들과는 다른 여러 상황에 노출된 초등학생을 대하다 보면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기표현에 서투르며 처음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전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아이들은 평소 자아존중감이 낮아 자기는 무엇이든지 해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는 요즘 아이들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줄어들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화와 소통이 부족한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원에서는 지나친 교육경쟁으로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할 기회조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점점 흥미위주의 인터넷게임이나 대중매체에 빠져들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꿈이나 희망이 사라진 무기력한 결과를 초래한다.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의 문제는 결국 학교와 사회생활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2011년 하반기,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인터넷 셧다운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12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아이들이 인터넷게임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마련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많은 시간을 학교 또는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또는 맞벌이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방과 후 보육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부모의 열악한 환경이나 맞벌이로 인해 가족과 접할 시간이 적다. 그러므로 교우관계가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우관계 형성이 장차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즉, 교우관계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사회에서 올바르게 적합한 행동을 익히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요즘 초등학교 교실을 들여다보면 핵가족화로 한 가정이 한두 명의 자녀를 두는 관계로 자신의 감정과 편의만을 중요시 여기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서 '왕따'와 같은 학교 문제들을 초래한다.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워 인간관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초등학교에서의 이러한 따돌림은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되고 낮은 자아존중감, 소외감, 적개심을 야기시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결국 원만한 또래관계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학교와 학원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교우관계를 향상시키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향상을 위하여 자기표현훈련, 음악치료, 놀이치료, 협동학습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그중에서 교육적 접근 방법의 하나로 독서치료가 있다. 독서치료는 다양한 그림책을 매개로 내담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과 성장, 당면한 문제해결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상담적 접근방법이다(김현희 외, 2003).

독서치료는 이론이나 방법, 치료 절차의 학습이나 습득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

루어지며 책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항감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른 심리치료보다 덜 받으며 치료대상자 자신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흥미롭게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윤정옥, 1998).

더욱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효과적인데 문제 아동이나 일반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 아동들에게도 자신의 부적응 행동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스스로 교정하게 해 바람직한 행동 성향을 지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정상아동을 지적, 정서적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하게 하는 데도 유사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권선영, 2011).

그러나 요즘 초등학생들은 교과학습 및 학원수업 등 과도한 학습량 때문에 독서시간이 부족하고,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독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과 그림책을 통한 독서치료 사례연구가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독서치료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독서치료 매개체로서 그림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림책은 문학의 한 장르로 아직 사물에 대한 지각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이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림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상력은 질 높은 그림책을 자주 접함으로써 확대될 수 있다.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상호작용 기술을 익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 집단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생에게 적용,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그림책을 매개로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건전한 인격형성 및 가치관을 확립하고 학교나 가정, 또래집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부적응에 대한 예방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 Esteem)이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스스로에 내리는 평가로서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 : SES)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점수의 높낮이를 통해 자아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살

펴볼 수 있다.

3) 교우관계

이 연구에 있어 교우관계란 초등학생이 학급 또는 방과 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친밀하고 자발적인 관계이다. 이것은 애착과 호감 공유 및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또래의 친밀관계이며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교제의 지속성, 친구간의 적응, 친구와의 같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에 대한 초등학생의 반응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향상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독서치료의 전반적인 이론과 독서치료 매개체로서의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그림책의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선행 이론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그림책을 이용한 독서치료

1) 독서치료의 원리

독서치료(Bibliotherapy)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동안 독자의 내면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김현희, 2001). 이를 위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첫째는 독서 행위론적 관점이고 두 번째로는 분석 심리적 관점이다.

(1) 독서 행위론적 관점

독서과정은 인간의 신체적 준비도, 공감적, 감각적, 지각적, 연속적, 경험적, 사고적, 학습적, 결합적, 그리고 정서적 측면이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책을 한 권을 잘 읽어낸다는 것은 인간의 총체적 정신능력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서란 단순히 문자에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해독의 과정이나 단순한 내용 전달에 그치는 행위가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글을 분석, 종합, 추론, 판단하는 주체적인 사고과정이라는 점에서 독서치료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의 독서치료는 단순히 책을 추천해 주는 정보제공형 독서치료를 넘어서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토론하기)를 통합하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는 독서행위를 총체적 관점에서 보고 접근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제공형 독서는

독서행위에서 입력의 부분을, 시(詩) 치료와 글쓰기 치료 등은 출력 영역을 강조한 독서치료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논하게 될 분석 심리적 관점은 책을 읽을 때 독자의 내면세계의 역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 다양한 형태의 독서치료의 흐름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처지와 문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배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심리적 관점

책을 읽을 때 내담자의 마음속에 어떤 사고와 생각들이 벌어지기에 독서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분석 심리적 관점이다. 이에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가 있다.

① 동일화의 원리 / 감정이입(感情移入, Empathy)

독일의 헤르만 로체가 1858년에 처음 예술과 관련지어서 아인필롱(Einf lung, 감정을 넣어줌)이란 말을 썼고, 후에 테오도르 립스가 예술의 이론으로 정립시켰다. 이들은 수사학에서 의인법(擬人法), 비유(比喩) 등은 모두 감정이입의 결과라는 것이다.

감정이입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공감(共感, Sympathy)이라는 말이 있다. 공감은 주로 인간끼리 동류의식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어느 한 책을 보면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민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제3자의 감정이 공감인 것이다. 감정이입이 결합시키는 것이라면 공감은 나란히 서게 하는 것이다.

독자는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작품을 읽을 수 없다. 작중 인물들은 대개 공감 또는 반감(反感)을 사도록 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얼마나 옳게 공감하고 또 얼마나 바르게 반감을 가지는가가 독자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공감은 다분히 지적이고 사상적인 것인 반면, 감정이입은 육체적이고 본능적이다. 이 감정의 전이는 책의 내용이 전개되면서 더욱 깊어지게 되고 독서 참여자는 내면에 등장인물과 같은 감정을 계속 심화시키고 증대시키게 된다(원동연, 유혜숙, 유동준 공저, 2005).

② 카타르시스의 원리

독서요법에 있어서의 카타르시스는 책 속 등장인물의 감정, 사고, 성격, 태도에 대한 감상을 문장으로나 말로 표현시키는 소위 감상의 고백을 말한다. 이런 감상의 고백은 사실 대상자 자신의 내면적인 정서나 사고, 성격, 태도의 투영, 즉 간접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다른 심리요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항도 받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글이나 말로 감상을 표현해 나가는 동안 의식적인 억제나 억압이 점차 약해져 감에 따라 등장인물에 대한 감상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현실 생활 중의 인물에 대한 감상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 형태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

보통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와 함께 수반되는 분노나 극도의 좌절감,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나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약하다. 때문에 일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그러한 부정적 감정에서 해방되면서 올바른 자기 통찰(洞察: Insight)이 가능하게 된다. 통찰이란 ‘자기 자신이나 자기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객관적인 인식을 체득하는 것(손정표, 2001)’을 의미한다.

독서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자신과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 책 속의 등장인물이 어떻게 그 문제를 생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움으로써 통찰이 일어나도록 촉진한다. 즉 책 속의 등장인물들이 내담자의 모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통찰의 원리

통찰이란 지각장의 재조직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깨닫는 것이며 축적된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며, 자기의 재정향을 의미한다. 통찰의 첫 요소인 관계의 지각은 지적인 영역과 지각적인 영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수수께끼를 푸는 데서 자주 나타난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본다. 갑자기 이 요소들을 새로운 관계에서 지각하게 되면서 수수께끼를 풀게 된다. 이런 지각은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오직 내담자가 정화의 과정을 통하여 방어에서 해방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지각장의 재조직화는 오로지 이런 감정의 해소 상태에서

만 일어날 수 있다. 이 새로운 지각의 자발적인 발달만이 통찰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통찰 과정에서 두 번째 요소는 자기의 수용이다. 지각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충동의 본질적 관련성에 대한 지각이다. 상담 상황의 수용적 분위기는 내담자가 매우 쉽게 모든 태도와 충동을 인정하게 해준다. 상담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감정이나 이상적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 감정을 부정하려는 일반적인 욕구가 없다.

내담자는 자신이 평소에 생각해 온 대로 자기 자신과 그보다 더 가치가 없고 더 수용하기 어려운 충동 사이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담자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경험을 통합할 수 있게 되어 훨씬 덜 분할된 사람이 된다. 그리고 훨씬 잘 기능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어서 모든 감정과 행동이 다른 모든 감정과 행동을 서로 인정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세 번째 요소는 선택으로, 진정한 통찰은 보다 더 만족스러운 목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경증 환자는 현재의 만족과 성숙한 행동의 만족 사이의 선택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후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 선택의 행위를 '창조적 의지'라고 한다. 만일 이 용어가 면담 상황에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상담에 관한 지식에서 이런 가정을 입증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용어를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방법에 직면할 때 항상 하는 선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사용한다면, 이 말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선택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 상담에서 통찰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목표와 지연되지만 보다 영속적인 만족을 주는 목표 사이의 선택을 포함한다. 자기 이해의 이 세 번째 요인을 이해하면 통찰이란 궁극적으로 내담자에 의해 얻어지고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과 교육적인 수단이나 지시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에게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통찰은 어느 누구도 내담자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을 포함한다. 만일 상담자가 이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주제를 명료하게 해주면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이해하는 태도로 지지해줄 수만 있다면 이 선택은 건설적인 것이고, 이러한 선택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적극적인 행동

이 취해질 확률을 매우 높여 줄 것이다(김현희 외, 2001).

결론적으로 내담자는 이 새로운 행동을 새로운 목표를 향한 최초의 움직임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때 상담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만족이 증가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독서치료의 효과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최선희(1997)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초등 5학년 3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Wastson(1994)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번안, 재구성하여 9주간 독서치료를 한 결과 아동의 사회적 자기개념과 인간관계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혀냈으며, 기타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구현숙(2005), 우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미화와 김춘경(2005) 연구,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경애(2005), 학교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초등 3학년 대상의 이서연(2006) 연구 등은 독서치료에 대한 방향성 및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시해준다.

첫째, 반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독서치료를 통해 참여자들은 독서치료 자료나 일상적인 삶에 대해 느끼는 심상, 개념, 정서반응들을 촉진하고 풍부하게 한다. 참여자들의 반응하는 능력과 관계된 다음의 네 측면들 즉,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상상력 자극하기(Mental and imaginative stimulation), 아름다움의 자유로운 특성 경험하기(Experiencing the liberating quality of beauty), 주의 집중할 초점 제공하기(Providing focus), 감정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기(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feeling)를 향상시키는데 독서치료가 기여한다.

둘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정확하게 자신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한다. 내적인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늘 유쾌한 것은 아니나 독서치료를 통해 참여자가 자기 내부의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들과 자아에 대해 이해를 나눔으로써 자신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자신의 개인적인 대인관계를 명료화해준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자신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타인들과의 상호관련성을 잘 인식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독서치료를 통해 보편적인 감정과 타인에 대한 인식,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현실을 보는 견해를 넓혀준다. 주변세계를 바르게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그들이 성인세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독서치료를 통해 현실을 보는 견해를 확장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변인으로서 자주 다루어지는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학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지나 대부분 이론적 입장과 개인적 선호에 따라 어느 한 용어를 채택한 후에는 그 표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체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용어는 앞서 William James가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여러 연구자들도 각자의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 수용하고 있다.

Kokenes(1974)는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검사를 사용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시기에 이르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단계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4학년과 5학년 아동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적절감과 부적절감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지어서 자기존중 또는 자기비하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신진희, 2005, 재인용).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평가적 차원이라고 보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라고 하였다. Rosenberg(1979)는 자아의 다양한 요소들이 나름대

로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이루고 일반적 자아가치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자아존중감은 극히 어렸을 때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 방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인 양육을 받으면 자아존중감은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어 정상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지만, 부정적인 양육을 받으면 자아존중감은 왜곡된 자부심으로 고착된다. 가정환경 측면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양친의 유무, 가정의 형태 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중요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갈등은 부모의 온정적이고 개입적인 양육 행동을 감소시키며 절대적인 양육 행동을 증대시킴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우울을 경험하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여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김지선, 2009).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은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말미암아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을 일반 아동과 거리가 먼, 버림받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심리적으로 위축감과 좌절감을 갖게 하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이지혜, 2003).

저소득층 아동은 사회적 고립으로 타인의 눈치를 보기도 하며 선입관에 대한 반발 심리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보이기도 하며 부정적인 자기가치로 자존감이 낮을 수 없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뿐만 아니라 자아를 거부하거나 자아를 경시하며 자아평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암시한다(한윤경, 2006).

3) 교우관계의 개념

친구와의 관계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정 밖의 사회를 접할 때에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인간관계이며 평생토록 지속되는 관계이다. 아동은 친구들과 어울리면

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사교성이 높아지고 지도력이나 복종적 태도를 스스로 체득하기도 한다. 따라서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우관계가 성공적일 때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왕따나 인간소외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일생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삶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홍대식(1990)은 교우관계를 두 사람이 상호 의존하여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로, 빈번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그 관계까지 밀접해진다고 하였으며 송대영(2007)은 교우관계란 사회적, 정서적 목적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에서 다양한 유형과 정도의 친밀성, 애정 및 상호지원을 교류하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사람들 간의 자발적인 상호의존관계라고 정의했다.

Domon(1977)은 상대방에 대한 '선호(Liking)'를 교우관계의 기본 요소로 간주하였으며 교우관계를 '선호'로 특징 지워지는 인간관계로 보았다. 즉, 친구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며, 서로 이해하고 사적인 생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감정, 비밀을 이야기하는 등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이며 양방적인 관계라고 하였으며(김성규, 2010), 김재한(1993)은 "교우관계란 서로 좋아하는 두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쌍방의 사회적 관계로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대등한 입장에서의 비형식적이고 사회적 공감에 의한 결합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교우관계란 두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로 상호의존적이고 연속적이며, 친족관계나 직무관계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기의 발달과업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교우관계의 기능

권석만(2000)은 교우관계의 기능을 첫째,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인정하는 정서적 지지는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친구는 중요한 정서적 공감자이며 지지자가 되고 둘째,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주요한 비교준거로서 어떤 다른 대상보다 자신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

료를 제공하는 유익한 대상이며 셋째, 공통의 화제, 관심사,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 즐거운 체험을 함께하는 사람이고 넷째, 친구집단에 소속됨으로써 그 집단을 자신의 준거집단으로 삼게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 경험과 도움을 안정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정된 소속감을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곤경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된 대상으로서 삶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Hurlock(1996)은 교우관계의 기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첫째, 안정감 또는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우정을 갖게 하고 둘째,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며 셋째, 타인과 원만하게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얻게 하고 넷째, 관대함과 이해력을 발달시키고 다섯째, 사회적 기술을 얻게 하는 기회를 준다. 여섯째 사람을 비판하는 기회를 주고 일곱째 구매행동의 경험을 제공하며 여덟째, 충성심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김성규, 2010).

5) 초등학교 시기의 교우관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용모나 소유물 등 아주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친구를 골라서 사귀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친구를 선택함에 있어 내면적인 속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즉 초기에는 나이가 같거나 좋아하는 활동이 같은 친구를 좋아하지만 점점 자라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지지를 잘해주는지, 자기 개방적인지, 서로 신뢰하는지 등이 친구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아동은 가족관계 이외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래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사교성이 증진되며, 지도력이나 복종적 태도를 스스로 체득하기도 한다. 유아들은 일시적인 놀이상대로서 또래에게 관심을 갖지만 초등학교를 입학하고부터 이러한 친구관계 형성에서 벗어나 친구를 골라서 사귀기 시작하며 일시적인 상호작용을 뛰어넘어 지속적인 관계로 생각한다.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친구에 대한 생각, 선택이유,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아동기 초기에는 우정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며 갈등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아동기 중반부터 서로 놀거나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 이상의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친구관계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소속감이 나타나며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Berk, 1996).

3. 독서치료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독서치료 관련 연구는 대상과 관련 변인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집단 따돌림 피해·가해 아동, 자폐 아동, ADHD 아동, 비만 아동, 학습부진 아동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근래에는 정상적인 발달상에 있는 아동에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독서치료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독서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중속변인 역시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자아개념, 사회성, 스트레스 대처, 자해행동, 공감능력, 또래관계, 정서 지능, 충동성 등 다양한 변인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독서치료가 광범위한 대상에게 다양한 영역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정상적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발달적 예방적 차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구옥란, 2005; 구현숙, 2005; 배현정, 2010; 서나라, 2006; 유상희, 2008; 이미경, 2008; 최영주, 2008)도 있고,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바람직한 교우관계 형성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김민희, 2009; 박명화, 2007; 박선숙, 2008; 정현진, 2010; 최미정, 2010)도 있다. 그 외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가 자아존중감(이선영, 2003),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김상희, 2007; 송성순, 2007),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이순봉, 2007)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들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고찰 결과 독서치료는 다양한 대상과 변인들에 대해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을 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실시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쉽지 않다. 연구자는 그림책을 통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여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Ⅲ. 가설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논문 고찰을 토대로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생에게 적용하였을 때,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교우관계 하위영역에서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1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친구 유무와 신의가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2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교제의 지속성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3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친구간의 적응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4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친구와의 공동생활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절차

이 연구에서 실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설계를 사전·사후, 실험·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어떠한 처치도 제공하지 않았다. 사전검사는 1월 5일 실시하였고 사후검사는 16회기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날인 4월 9일 실시하였다.

[표 IV-1] 연구 절차

G ₁	O ₁	X	O ₃
G ₂	O ₂		O ₄

G₁ : 실험집단

G₂ : 통제집단

O₁, O₂ : 사전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교우관계 검사)

O₃, O₄ : 사후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교우관계 검사)

X : 실험처치(독서치료 프로그램)

2. 연구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화로에 위치한 A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A지역아동센터 내의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16명 중 통제집단 8명과 실험집단 8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표 IV-2]와 같이 각각 4학년 남아 3명, 여아 2명, 5학년 여아 2명, 6학년 여아 1명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위치는 대단위 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근거리에 있으며 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건전한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도모하여 학업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한 보호, 교육, 문화체험, 지역연계프로그램 사업 등을 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종합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 IV-2] 실험·통제 집단 구성

구분(학년/성별)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4	남	3	3	6
	여	2	2	4
5	남	0	0	0
	여	2	2	4
6	남	0	0	0
	여	1	1	2
계		8	8	16

3.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척도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가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6문항(1, 2, 4, 6, 7, 8번 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4문항(3, 5, 9, 10번 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Likert)식 척도로서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1(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이다.

부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다. 이영호(1993)가 산출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표 IV-3] 자아존중감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내적 합치도
자아존중감	1, 2, 3`, 4, 5`, 6, 7, 8, 9`, 10`	10	.83

(` 문항은 역산 문항임)

2) 교우관계 척도

아동의 교우관계를 평정하기 위한 도구는 김형태(1989)가 제작하여 문항분석을 마친 교우관계 척도로 문소영(2007)이 초등학생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6문항은 친구의 유무와 신의, 6문항은 교제의 지속성, 6문항은 친구간의 적응, 3문항은 친구와의 공동생활 등의 교우관계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평정 척도는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를 4점으로,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채점하며, 부정으로 된 문항에 대한 반응을 긍정 문항으로 역산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넣었다.

[표 IV-4] 교우관계검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내적 합치도
친구의 유무와 신의	1, 2, 3`, 4, 5`, 6`	6	.95
교제의 지속성	7`, 8, 9`, 10`, 11`, 12`	6	.66
친구간의 적응	13`, 14`, 15`, 16, 17`	5	.71
친구와의 공동생활	18`, 19, 20	3	.63
전체		20	.75

(`문항은 역산 문항임)

3) 관찰일지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척도의 양적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사의 관찰일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아동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기를 기준으로 특정한 행동과 언어표현을 교사가 작성하였다. 대상 아동 모두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4. 처치도구

1)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

이 연구에서 그림책 독서치료란 책을 통해 아동의 문제에 접근하여 작품 속에 암시되어 있는 문제해결방식 등을 통해 아동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발달적, 예방적 접근방법이다.

이 연구는 총 16회기 구성되었으며, 13권의 독서재료를 사용하였다. 각 회기는 Watson(1994)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구옥란(2005), 구현숙(2005)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회기별 독서치료 프로그램 활동 내용은 다음 [표 IV - 5]와 같다.

[표 IV-5] 회기별 독서치료 프로그램 활동 내용

회기	프로그램 활동 내용	독서자료	구성요소	기대효과
1	프로그램 소개하기 마음열기 / 사전검사	프로그램 안내		
2	걱정인형을 통해 자기를 투사하고 건강한 자아로서 문제 해결 방법 모색하기	걱쟁이 빌리 (앤서니 브라운/ 비룡소)	문제해결능력 자기표현능력	자아존중감
3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알고 나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나누기	강아지 똥 (권정생/길벗어린이)	자아통찰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4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건강한 자아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역할극하기	사라, 버스를 타다 (윌리엄 밀러/존 워드)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5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하기 위한 자아존중감과 행복하기 위한 문제 해결능력에 대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셸 실버스타인/시공주니어)	문제해결능력 자기표현능력	자아존중감
6	가치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알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치사건을 통해 표현해보기	아름다운 가치사전 (채인선/한울림어린이)	문제해결능력 자아통찰	교우관계
7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서의 내 모습 / 칭찬릴레이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카도/고슴도치)	자아통찰 사회적응능력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8	불만족스러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함께 나누고 바른 방법 모색하기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미하엘 헨데/소년한길)	교우관계 공감능력	교우관계
9	타인을 따라 무조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 이야기 나누기 / 조각퍼즐을 통해 시각적 독후활동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시공주니어)	자아통찰 사회적응능력	자아존중감
10	‘학교생활 중 어떤 경우에 용기가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처 방법	어린이를 위한 용기 (노경실/위즈덤하우스)	사회적응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11	새로운 친구를 받아들이는 방법과 서로의 취향과 생각을 존중하며 마음을 맞춰나가는 방법	짜장, 짬뽕, 당수육 (김영주/재미마주)	문제해결능력 자기표현능력	자아존중감
12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통해 작은 것을 성실히 수행할 때 뒤따르는 것을 메모해보기, 나의 학교생활과 접목시켜 생각해 보기	꿈의 궁전을 만든 우체부 슈발 (오카야 코지/ 진선출판사)	문제해결능력 지구력	교우관계
13	나의 학교생활 나누기 꿈을 가진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와 자신감	어린이를 위한 바보 빅터 (호아킴 데 포사다/ 한국경제신문사)	자아통찰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14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법 생각해 보기	나쁜 어린이 표 (황선미/웅진주니어)	자아통찰 지구력	자아존중감
15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이룬 도전적인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재의 내 학교생활 이야기 나누기 / 꿈 나누기 / 칭찬 릴레이	시연에게 듣는 꿈 이야기 (작가 초청 강연)	문제해결능력 자아통찰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16	사후 검사 / 프로그램 마무리 / 소감 나누기	마무리		

2) 선정도서

그림책 독서치료를 위한 도서선정은 초등학생들이 읽기에 부담이 없고 수준이 적절하며 자아존중성과 학교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화와 그림책을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에 쓰일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도서를 선정하였다.

첫째, 생활경험을 소재로 하고 줄거리가 단순하며 그 내용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둘째, 주제가 분명하고 간결한 문장과 대화, 정확한 언어로 쓰여

진 것. 셋째, 그림이 선명하여 등장인물과 그 상황이 아동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것. 넷째, 문학적 장점이 있고 발달적 수준에 적합하며 주인공의 감정과 갈등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포함된 것 등이다(장혜순, 1997; 이상금, 2002).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쓰인 회기별 도서자료 목록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V. 연구 결과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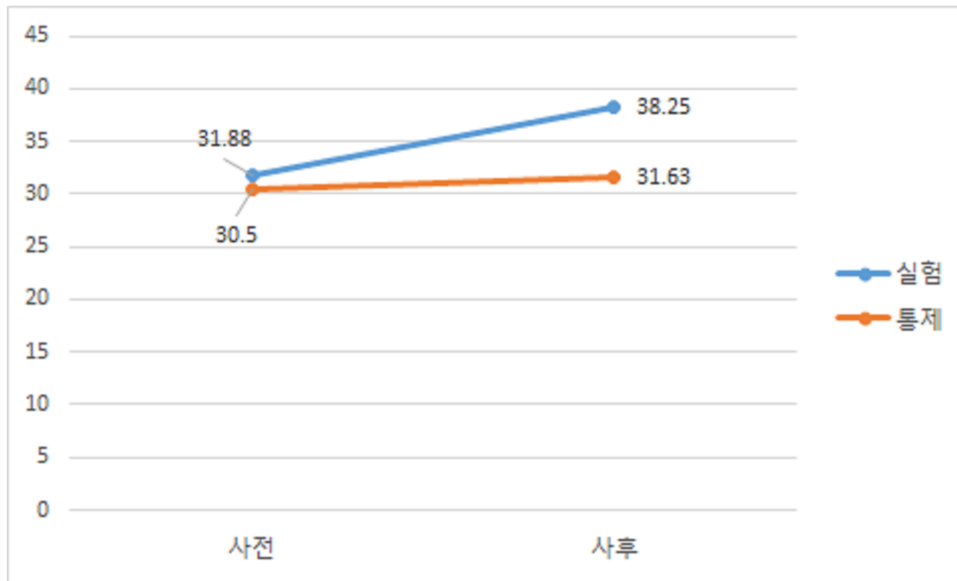
1.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 양적 분석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사전 점수를 공변인, 실험과 통제집단을 독립변인, 사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과 사후 점수의 기제는 [표 V-1]과 같다.

[표 V-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제

구분	실험($n=8$)		통제($n=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검사	31.88	4.76	30.50	3.07
사후검사	38.25	1.75	31.63	4.50



[그림 V-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 변화

위의 [표 V-1]에 나타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공변량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V-2]과 같다.

[표 V-2] 자아존중감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유의확률
공변량 (사전점수)	7.384	1	7.384	0.615	0.447
집단	157.315	1	157.315	13.110	0.003
오차	155.991	13	11.999		
합계	19869.000	16			

[표 V-2]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3.110$, $p=0.003$) 이는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2) 관찰일지를 통한 질적 분석

16회기 중 평균 7~8회로 관찰일지가 작성되었다. 여기서 연구자는 초기, 중반, 후반에서 변화를 보인 두 아동의 관찰일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고지운(가명)’ 학생의 경우, 1회기 관찰일지를 보면 “작고 마른 체형인데다 말수도 적다. 친해지면 좀 더 말을 하려나? 첫 시간이라 수업을 소개하고 서로를 소개했는데 지운이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로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5회기에는 “발표는 안했지만 독후활동 시간에 가족에 대한 표현을 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무가 되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고 하니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다.”의 내용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이 아동이 자신의 내면을 독후활동을 통해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에 8회기에는 “표정이 밝아졌다. 목소리가 작지만 자기표현을 잘 하고 아이들과 까르르 잘 웃었다. 책을 흥미 있게 읽고, 독후활동에도 즐겁게 참여했다. 다음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묻기도 했다”고 했으며 15회기에는 “의외로 지운이가 질문을 많이 했다. 사촌동생과 조금 일찍 귀가하면서 계속 말을 했다. 점점 이야깃거리가 많아지나 보다”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마지막 회기인 16회기에서는 “문구세트를 받고 싶은데 언제 줄 건지 말해 달라고 졸랐다”가 관찰되었다. 처음 1회기에 보였던 소극적 모습에서 내면을 표현하며 참여도가 높아졌고 말수가 없던 모습에서 점점 자기표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조평근(가명)에 대한 관찰일지를 살펴보면, 3회기에 “강아지 똥이라는 책에서 똥의 단어로 인상을 썼다. 독후활동을 집중해서 잘 했고 다른 아이들이 발표하는 걸 유심히 봤다. 그러나 자기 것은 발표하지 않았다. 창피하다고 쑥스러워했다.”고 작성되었다. 그리고 6회기에서도 “발표는 하지 않았다. 독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서 아직은 자신의 의사표현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다. 이에 14회기에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하며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16회기에서는 “수업이 끝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물었다. 그 다음엔 뭐 할 건지, 몇 시에 어떻게 할 건지, 유난히 표정이 밝아 보였다.”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처음부터 발표나 의사표현에 대해 소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

도는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높았다. 그러면서 회기가 지날수록 교사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김연희(가명)에 대한 관찰일지를 살펴보면, ‘겉쟁이 빌리’ 독후활동으로 걱정인형을 만들며, 현재 자신의 걱정을 적어보았다. 연희는 특별히 걱정거리가 없다고 적었다. 옆에 앉은 친언니 때문인지 만드는 것에는 집중했지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는 어려워했다. 5회기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야기 해보고, 내가 나무라면 누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적어보았다. 연희는 가족을 이야기 했고 언니에게 소소한 학용품 등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아동들이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보람을 느끼길 바란다. 연희이가 또래에 비해 마른 체형인데 활동 후 스스로 교실 정리 정돈을 했다. 13회기 ‘어린이를 위한 바보 빅터’ 멘사회장의 실화를 역은 책이라고 소개하니까 책을 얼른 가로채 갔다.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때그때 표현하지는 않지만 처음보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다. 15회기에 초청 강사는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된 강사였다. 시인이 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망울이 초롱초롱해 졌다. 아이들이 일반적인 질문을 하자 연희가 “왜 선생님을 그만 뒀어요?” 하며 자기가 묻고 싶은 질문을 던졌다. 집중하는 모습에서 호기심과 열정을 느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 태도가 달라졌으니까. 16회기 마무리, 사후평가 16회기를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꼽아보았다. 연희는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이라고 했다. 그 다음은 독후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가치사전’이라고 했다.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발표하고 다른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하며 듣는 모습이 예뻐 보였다. 사후 평가를 보며 “이거 저번에 했어요!” 하며 또랑또랑하게 말했다.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연희이의 미래가 기대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아동의 행동에서 회기가 진행될수록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향상되는 척도점수와 더불어 아동의 행동과 언어표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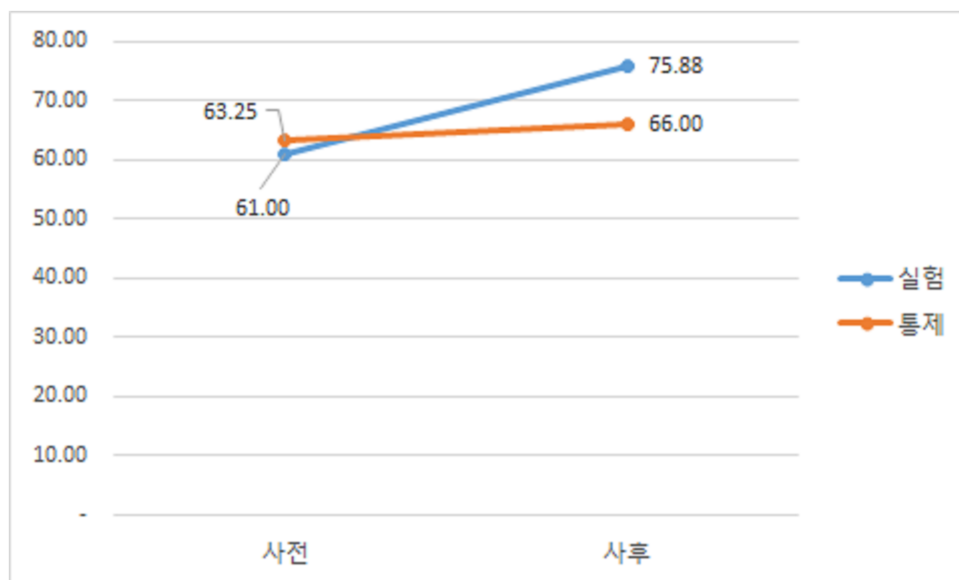
2.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양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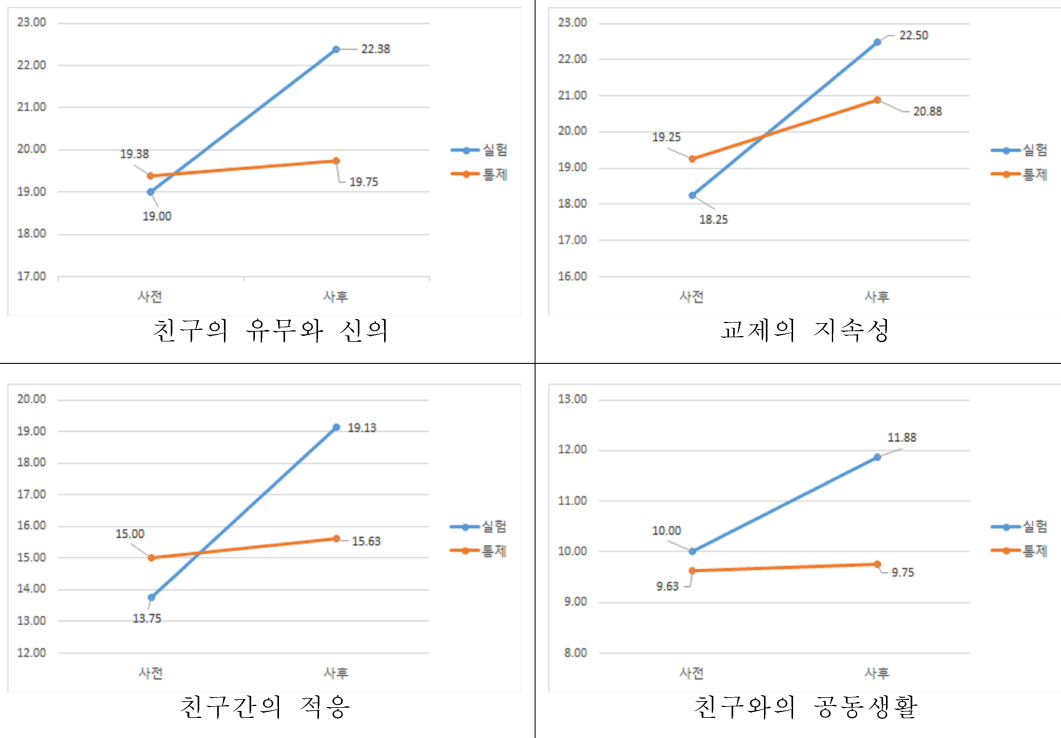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교우관계 사전 점수를 공변인, 실험과 통제집단을 독립변인, 사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교우관계에 대한 사전과 사후 점수의 기제는 [표 V-3]과 같다.

[표 V-3]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교우관계에 대한 기제

구분	실험($n=8$)		통제($n=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검사	61.00	4.24	63.25	8.03
사후검사	75.88	5.41	66.00	8.16



[그림 V-2]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교우관계 사전, 사후 변화



[그림 V-3]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교우관계 하위요인의 사전, 사후 변화

위의 [표 V-3]에 나타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공변량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V-4]와 같다.

[표 V-4] 교우관계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유의확률
공변량 (사전점수)	327.662	1	327.662	12.411	0.004
집단	517.302	1	517.302	19.594	0.001
오차	343.213	13	26.401		
합계	81575.000	16			

[표 V-4]의 교우관계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교우관계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9.594, p=0.001$). 이는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교우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표 V-5] 아동의 교우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기제

하위영역	구분	실험($n=8$)		통제($n=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친구의 유무와 신의	사전검사	19.00	2.62	19.38	3.16
	사후검사	23.38	3.46	19.75	3.06
교제의 지속성	사전검사	18.25	3.28	19.25	2.92
	사후검사	22.50	2.00	20.88	3.31
친구간의 적응	사전검사	13.75	1.39	15.00	2.14
	사후검사	19.13	0.64	15.63	1.69
친구와의 공동생활	사전검사	10.00	1.69	9.63	1.77
	사후검사	11.88	0.13	9.75	1.75

위의 [표 V-5]에 나타난 교우관계 하위요인들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알기 위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V-6] 같다.

[표 V-6] 교우관계의 하위요인별 공변량 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유의확률
친구의 유무와 신의	공변량 (사전점수)	0.005	1	0.005	0.000	0.984
	집단	27.481	1	27.481	2.392	0.146
	오차	149.370	13	11.490		
	합계	7275.000	16			
교제의 지속성	공변량 (사전점수)	60.334	1	60.334	17.609	0.001
	집단	20.435	1	20.435	5.964	0.030
	오차	44.541	13	3.426		
	합계	7641.000	16			
친구간의 적응	공변량 (사전점수)	4.463	1	4.463	3.173	0.098
	집단	53.259	1	53.259	37.861	0.000
	오차	18.287	13	1.407		
	합계	4902.000	16			
친구와의 공동생활	공변량 (사전점수)	7.954	1	7.954	7.170	0.019
	집단	15.187	1	15.187	13.690	0.003
	오차	14.421	13	1.109		
	합계	1991.000	16			

[표 V-6]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우관계의 하위요인 중 친구의 유무와 신의 영역에서는 사전점수의 영향을 배제한 사후점수의 평균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F=2.392$, $p=0.146$). 즉,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친구의 유무와 친구간의 신의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의 지속성 영역에서는 사전점수의 영향을 배제하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점수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964$, $p=0.030$).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친구관계가 지속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 간의 적응 영역에서도 사전점수의 영향을 배제한 사후점수의 평균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37.861$, $p=0.000$). 따라서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친구간의 적응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 간의 공동생활 영역의 사후점수에서 사전점수의 영향을 배제하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3.690$, $p=0.003$).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친구들의 공동생활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찰일지를 통한 질적 분석

김소영(가명)에 대한 교사의 관찰일지를 통해 그림책 독서치료가 교우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교사의 소영이에 대한 관찰일지를 살펴보면, 그림책 독서 치료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사전검사 첫 시간이라 자기소개, 수업소개를 했는데 밝고 흥미 있게 참석했다. 친동생 연희와 나란히 앉아 중간 중간 이야기하며 장난도 쳤다. 만언니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른 아동들을 챙겨 주었다. 교우관계 검사지와 자아존중감 검사지를 받고 신중하게 체크했다. 라고 프로그램 진행교사는 서술했다. 2015년 1월 19일 3회기 ‘강아지 똥’ 수업 후에는 강아지 똥이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슬퍼하는 모습에서 동정심을 드러냈다. 독후활동으로 입술책을 만들어서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 보았는데 ‘너는 민들레를 꽃피우는 꼭 필요한 존재’ 라며 ‘힘을 내라’고 했다. 책을 통해 감정이입을 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또한 자기 생각을 잘 드러내는 모습도 다른 아동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러나 수업 중간 중간 연희와 이야기하고, 다른 아동들이 활동하는 것에 참견했다고 기술했다. 2015년 1월 26일 4회기 ‘사라, 버스를 타다’ 수업 후에는 흑인 소녀 사라의 이야기를 읽고,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학교에서 차별 받은 적이 있는지,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영이는 한부모 가정이다. 조심스런 주제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더 유심히 살폈는데 자기 이야기 보다는 학교 친구의 이야기를 하며 ‘차별’과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소영이의 교우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기술했다. 2015년 2월 9일 7회기 ‘너는 특별하단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선정된 도서다. 또한 자아존중감으로 인한 교우관계까지 확장하여 이야기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작했다. 소영이는 조금 분주해 보였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앞에 앉은 남자 아이들의 행동을 지적했다. 수업 중에 큰 소리로 다른 아이 이름을 부르거나 “야, 하지마!” 하면서 엄한 누나 역할을 했다. 정작 소영이는 수업에 잘 참여하질 못 했다. 서로의 특별함을 써 주는 시간에는 여자 아이 몇 명에게만 써 주었다. 2015년 3월 23일 14회기 ‘나쁜 어린이표’ 소영이는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깊이 사귀고 있고, 새 학년에 대한 기대도 많다고 했다. 처음보다 조리 있게 말하고 남보다는 자신에게 적용하며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보였다.

2015년 4월 9일 16회기 마무리, 사후검사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재미있는 책’을 선정해 보고 그 이유를 말했다. 소영이는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을 뽑았다. 상상의 나라의 펼 수 있는 책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했다. 소영이가 자신을 더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무리를 하면서도 흐뭇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인지 처음 보다는 언행이 너그럽고 여유 있게 보였다. 이와 같은 교사의 관찰일지에 근거하여 소영이가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우관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소영 학생은 사춘기 소녀가 흔히 가지고 있는 정서적 불안감과 가정에서, 또 아동센터에서 가지는 말언니라는 자신의 위치로 인해서 갖는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아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서치료가 계속 진행 중에 정서적인 안정감과 타인에 대한 이해도, 책임감이 높아짐에 따라 언행도 많이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양다희(가명)

2015년 1월 5일 1회기 오리엔테이션, 사전검사 첫 만남부터 엄청 시끄러웠다. 자칭 ‘참새’라고 소개하며 시종일관 떠들었다. 산만함과 집중하지 못함이 역력했다. 다른 아이들이 수업하는 것까지 방해하면 어쩌나 제일 걱정이다. 2015년 4월 9일 16회기 동안 다희에게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5년 2

월 2일 5회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독후활동에 즐겁게 참여했다. 여전히 시끄럽고 말은 많지만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럽진 않다. 조금 줄어든 것 같다. 다른 마음 맞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금세 원상태가 되지만 오늘은 그래도 집중해서 완성하고 발표도 자신감 있게 했다. 언제나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다희이의 장점이다. 8회기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책에 글이 많아서 아이들이 집중할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집중해 줬다. 다희도 책의 내용을 궁금해 하면서 다음 사건이 뭐냐고 미리 물어보곤 했다. 나에게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에 친구에게 먹여서 다희의 말을 잘 듣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2015년 3월 9일 12회기 ‘우체부 슈발’을 읽고 난 다음, 다희가 도착해서 혼자 책을 읽었다. 뒤에 인쇄된 슈발의 성을 보면서 “이게 진짜예요?” 하고 거듭 물었다. 각자의 가능성을 체크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다희를 많이 칭찬해 줬다. 교우관계가 원만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많고, 언제나 어울려 논다고 한다. 2015년 3월 23일 14회기 시인초청 강연 “진짜 시인이예요?”, “진짜 선생님이에요?”하고 물었다. 다희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꿈을 이룬 이야기를 들으며 다과를 나누며 다희의 표정이 환해졌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시니까 다른 친구들이 칭찬 받을 때도 맞아 맞아하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수업에 임했다. 또 양다희 학생의 경우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말도 조리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은 학생이었다. 그러나 주의력이 산만한 등 집중력이 약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으로 걱정이 많았으나, 독서치료가 진행 되면서 타인의 삶 (특히 성장소설)을 통해 자신의 환경과 투영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집중력 향상과 교우관계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독서치료는 아동의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향상된 척도 검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동들 간의 상호교류에 있어서도 쉽게 그 긍정적인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논의

1. 결론

연구자는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실험집단에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아동들이 책을 읽고, 책의 등장인물이나 등장인물이 접하는 사건을 통해, 상호작용으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울러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이끌어내어, 해결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수용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친숙한 책 속의 이야기 전개 상황에서 동일 시, 카타르시스, 통찰 및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유아를 대상으로 글 있는 그림책을 이용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이선영(2004)의 연구, 유아에게 친숙한 자아존중감 관련 그림책을 활용하고 독서치료적 발문의 회기별 고찰과 독서활동을 통하여, 독서치료 자원으로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옥(2011)의 연구,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미애(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으로써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교우관계 전체와 친구유무와 신뢰, 친구간 적응의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은 후 토론, 역할놀이, 문제해결 활동 등 교사와 학생, 학생과 또래들과의 여러 가지 방법의 자연스럽게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 자신의 적응과 성장 및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책의 내용이나 주인공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활동을 통해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게 하며,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을 학습하고, 나아가 여러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위촉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긍정적인 학교와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공감능력과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최미정(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책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친구 유무와 신의가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란 연구가 기각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교우관계 양상은 교우관계의 양적 증가 형태인 저학년 때와는 달리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려 한다. 친구의 유무와 신의 형성은 장기간동안 서로 공감대 속에서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본 연구자가 진행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단기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중 친구를 신뢰하는 것과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친구에 대한 적응향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독서지도 교사가 아동들에게 그림책을 읽고 글쓰기, 역할극, 토론 등의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통찰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 논의

이 연구의 실험처치, 제한점, 그리고 연구 결과로 얻어진 것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제주도 연동 지역아동센터의 4학년부터 6학년 까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 다양한 지역,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후 일반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그림책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는 계속 이뤄지고 있고 그 효과도 검증되고 있으나 전자도서나 영상자료 등을 함께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한 영상자료를 함께 활용했을 때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일반 아동에게 효과가 있는지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기간 동안 적용했을 때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구옥란(2005).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현숙(2005).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2000).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선영(2011).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존중감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희(20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위축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희(2008). 독서치료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규(2010). 동아리활동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옥(2011). 독서치료자원으로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활동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한(1993). **교육 심리학**. 서울: 양서원.
- 김지선(2009). 노래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화와 김춘경(2005)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우울아동의 우울감·일상생활 스트레스·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복지학회, 19**, 75-105.
- 김현희(2001). 아동을 위한 독서치료: 이론적 고찰.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2**(1), 67-92.
- 김현희 외(2003). **독서치료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연구: 발달 및 측정을 중심으로**.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 문경애(2005).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영(2007).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기표현력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화(2007).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숙(2008). 발달적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현정(2010).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나라(2006).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정표(2001). **신독서지도 방법론**. 대구: 태일사.
- 송대영(2007). **인간관계론**. 서울: 학지사.
- 송선순(2007). 독서요법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진희(2005).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동연·유혜숙·유동준(2005). **5차원 독서치료**. 과주: 김영사.
- 유상희(2008).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정옥(1998). 독서요법의 이론과 적용. **도서관**, 53(1), 47-64.
- 이미경(2008).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개선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2008).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가 저소득가정 독아의 자아존중 향상에 미치는 효과.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금(2002).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아이교육**. 서울: 사계절.
- 이서연(2006).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04). 글 있는 그림책을 이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봉(2007). 독서치료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호(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

- 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지혜(2003).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효과.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순(1997). **아동문학론**. 서울: 창지사.
- 전병제(1974). 자아 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 논총**, 11(1), 107-130.
- 정현진(2010).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교우관계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정(2010). 그림책 활용 독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공감능력 및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희(1997) 아동의 사회적 자아개념과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독서요법의 효과, 경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주(2008).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유진(2005). **아동문학을 활용한 독서치료의 실제**.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 한윤경(2006).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연구. **미술치료연구**, 13(1), 49-72.
- 홍대식(1990). **사회심리학**. 서울: 박영사.
- Berk, L. E.(1996).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2nd ed.). MA: Allyn & Bacon.
- Coleman, S., & Watson, H.(1990). *An introduction to anthropology*. Secaucus, NJ: Chartwell books.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Domon, W.(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 Bass.
- Higgins, E., et al.(198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A socio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bert, T. P.(1991). *Meetin the affective needs of bright boys through bibliotherapy*.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 Hurlock, E. B./정종진 옮김(1996). **엄마 아빠의 교육수첩**. 서울: 학지사.
- Hynes, A. M., & Hynes-Berry, M.(1994). *Biblio/poetry therapy*. St. Cloud, MN: North Star Press.
- James, W./정양은 옮김(2005). **심리학의 원리**. 서울: 아카넷.

- Mark, J. E., & Abon, S. L.(1985). *The development and sustenance of self-esteem in childhoo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Pardeck, J. A., & Pardeck, J. T.(1984). *Youg people with problems: a guide to bibliotherapy*.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s Books.
- Sullivan, P. E., & Markos, P. D(1987). *Clinical procedures in therapeutic exercise*. Norwalk, Conn: Appleton & Lange.
- Watson, D. C.(1994). The effects of three bibliotherapy techniques on fourth graders self-esteem, reading achievement, and attitudes toward reading. Un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Thesis Ph.D.

A B S T R A C T

The effect that picture books have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development in Children's Community Center.

Choi, Jung Ae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Ed. D.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reading therapy program on underprivileged regional child care center children's self-esteem and relationship between friends. So therefore, I decided to select the research subject to find out whether reading therapy helps regional child care center's children to raise self-esteem and makes them get along well with their friends.

To figure them out, I selected 8 children(3 boys and 5 girls) as an experiment group, and another 8 children(3 boys and 5 girls) as a controlled group. And I carried on a preliminary inspection of reading therapy, influencing the self-esteem and friendship of children. In the experiment

group, I implemented 16 times of reading therapy program using creative activity time. In the controlled group, I did nothing on them. And after the experiment, I implemented an after inspection.

As a check tool, I used the self-esteem experiment sheet which Rosenberg developed and Jeon Byungje adapted. And for the friendship experiment test, I referred Kim Hyungtae's adaptation considering an elementary student Moon Soyeong(2007)'s level of understanding as a friendship criterion.

Through this way and progress first, reading therapy program using picture book raised self-esteem meaningfully. Second, reading therapy through picture book m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regional child care center's friend relationships meaningfully.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reading therapy will be introduced on schools and help children know themselves, make positive ego, build trust between friends and understand them, and make interaction skills.

Based on the result, I would like to give the following proposal.

First, as the object of the study is limited on underprivileged regional child care center, it needs to be careful to generalize to all students. So therefore, studies of students with various region, time, and age are needed and must be generalized.

Second, we nee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use of reading therapy with e-book which needs more studies and various video materials.

Third, if we could create reading therapy program and use it in real school life, I believe that it could bring better educational effects than, discipline and persuasion.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reading therapy through picture book if it raises self-esteem and friendship or not. And I believe that it could be used as basic material in developing new reading therapy through books.

부 록

1. 자아존중감 척도
2. 교우관계 척도
3. 회기별 선정 도서자료 목록

<부록 1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Self Esteem Scale : SES]

척도내용	1)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아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 2)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1974)가 번안 3) 일반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학교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해당사항을 4점 척도상에 표시 (○ 또는 ✓)
해석지침	1) 총점의 범위 : 10 - 40점 2)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

◎ 다음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하십시오.

문 항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1	2	3	4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2	3	4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총 점 : _____

<부록 2 교우관계 척도>

교우관계 척도 [Friendship Scale]

척도내용	1) 개인의 교우관계 즉, 교우관계 정도와 교우관계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 2) 김형태(1989)가 제작한 검사를 문소영(2007)이 재구성 3) 친구의 유무와 신의 6문항, 교제의 지속성 6문항, 친구간의 적응 5문항, 친구와의 공동생활 3문항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해당사항을 4점 척도상에 표시 (○ 또는 ✓)
해석지침	1) 총점의 범위 : 20 - 80점 2)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

◎ 교우관계 검사

번호	질 문 내 용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1	나는 친구를 쉽게 잘 사귈다.				
2	우리반 친구들은 모두 좋은 친구들이다.				
3	나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4	나의 친구들은 내 말을 잘 믿어준다.				
5	나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				
6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친구가 별로 없다.				
7	나는 친구들과 쉽게 사이가 멀어지는 편이다.				
8	나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많다.				
9	나는 친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을 걸어서 고민한 적이 있다.				
10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자주 바뀐다.				
11	나는 친구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다가가는 것을 잘 못한다.				
12	나는 친구들과 잘 다툰다.				
13	나는 친구를 대할 때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생각하는 편이다.				
14	친한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어 안타깝다.				
15	나보다 무엇이든지 잘 하는 친구를 보면 질투심이 생긴다.				
16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17	친구들은 나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18	나는 친구문제로 공부에 방해가 된다.				
19	나는 친구가 많은 것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	나는 친구들의 어려움을 보면 잘 도와준다.				

<부록 3 회기별 선정 도서자료 목록>

회기	도서명	지은이와 출판사	주요내용
2	겹쟁이 빌리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비룡소)	빌리는 걱정이 많은 아이다. 모자도, 신발도, 구름도, 비도, 커다란 새도, 빌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걱정할 정도이다. 어느 날, 할머니 집에서 잠을 자게 된 빌리는 할머니에게 자기의 걱정거리를 얘기하자 할머니는 빌리에게 ‘걱정인형’을 선물로 주어 걱정을 털어가는 이야기
3	강아지 똥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길벗어린이)	강아지 똥은 민들레꽃을 만나면서 자신의 쓸모를 알게 된다. 즉 거름이 되어 민들레꽃을 피우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
4	사라, 버스를 타다	윌리엄 밀러 글/ 존 워드 그림 (사계절)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출발점이 된 로사 파크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 흑인 소녀 사라는 날마다 버스를 타면 뒷자리에 앉아야 했다. 앞자리가 백인들만 앉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사라는 그 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차별과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5	아낌없이 주는 나무	셸 실버스타인 글·그림 (시공주니어)	어린 소년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심심하면 놀이 상대를 해 주었던 나무. 성장하면서 그런 고마움을 어느새 잊어버린 소년은 그 나무를 잘라내 팔아버린다. 어른들의 가슴까지 뭉클하게 만들었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소년에게 바치는 나무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린 이야기
6	아름다운 가치사전	채인선 글·그림 (한울림어린이)	일상 속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아름다운 가치를 알아나가는 데 길잡이가 되는 책이다. 아이들만의 정의, 자기만이 느끼는 가치들을 정립하게 된다는 이야기
7	너는	맥스 루카도 글/ 그림	주위 나무들에게 야유를 받는 펜치넬로를 위

	특별하단다	세르지오 마르티네즈 그림 (고슴도치)	해 엘리 아저씨는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말을 들려준다. 이 말을 들은 펜치넬로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 극복해 나간다. 펜치넬로를 통해 영혼의 울림이 있는 삶의 해답을 제시해주는 이야기
8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미하엘 엔데 글/ 진드라 케팩 그림 (소년한길)	자신을 무시하는 부모에게 령켄은 감직한 응징 작전을 한다. 빗물 거리의 요정을 찾아가서 마법의 각설탕 두 조각을 얻어 오면서부터 령켄의 엄마, 아빠에게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
9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글·그림 (시공주니어)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한 마리 나비가 되기까지, 삶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 중간 삽화와 함께 풀어쓴 책. 작은 줄무늬 애벌레를 주인공으로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
10	어린이를 위한 용기	노경실 글/ 허라미 그림 (위즈덤하우스)	용기가 필요한 상황을 그린 7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야기 뒤에 덧붙인 용기 있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제시, 아이들 스스로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작가는 각 작품의 결말을 짓지 않고 '열린 결말'의 형식을 취하여 아이들 스스로 여러 가지 결말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
11	짜장, 짬뽕, 탕수육	김영주 글/ 고경숙 그림 (재미마주)	새 학교로 전학 온 아이와 새로운 친구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 학교에 적응하는 방법이 달라 고민을 하지만 이런 문제를 주인공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해나간다는 이야기
12	꿈의 궁전을 만든 우체부 슈발	오카야 코지 글/ 야마네 히데노부 그림 (진선출판사)	자신의 꿈을 완성한 슈발의 일생을 신기한 이야기 들려주듯이 재미있게 소개. 도저히 혼자서 완성하지 못할 것 같았던 아름다운 궁전들과 조각품은 슈발이 33년간 완성한 거대한 미술작품이다. 1969년 이후 문화재로 지정된 '슈발의 궁전'은 꿈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념을 심어준다는 이야기

13	어린이를 위한 바보 빅터	호아킴 데포사다, 레이먼드조 원저/ 전지은 글/ 원유미 그림 (한국경제신문사)	실제로는 천재였음에도 스스로 바보라 믿으며 17년간을 ‘바보’로 살아왔던 멘사 회장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인물의 실화. 포기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의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훈훈한 교훈과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
14	나쁜 어린이 표	황선미 글/ 권사우 그림 (웅진주니어)	건우는 나쁜 어린이 표를 받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번번이 노란 스티커를 받게 된다. 선생님 미고 학교도 가기 싫어지던 어느 날 선생님 책상에 있던 노란 스티커를 훔쳐 숨지만 선생님께 걸리고 만다.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었던 건우의 마음을 이해하며 선생님 또한 건우가 준 나쁜 선생님 표를 받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는 이야기

